

- 본 내용은 전기산업 6월호에 게재되었던 “개정된 전기사업법 논란확대” 기사(105쪽)와 관련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개정 법규에 대한 취지와 배경을 요약,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전기화재는 최근 5년간 매년 10,000여 건이 발생, 전체화재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로 인한 피해는 400여명의 인명피해와 500여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또한, 매년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의 70% 이상이 일반인들의 접촉빈도가 많은 구내 배전설비에서 발생하여 전기재해 방지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해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국무총리실 안전관리대책 기획단에서[국가안전관리 종합대책]의 100대 과제중의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그 후속조치로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어 “설비용량 1000kW이상 자가용 전기수용설비의 구내배전설비에 대하여 사용전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으로,

사용전검사 제도는 전기설비 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사용하기 전에 검사

하여 반드시 합격한 후에만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서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전기의 원활한 공급과 사고예방은 물론 유지·보수비용 절감 등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나라마다 지리적 또는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전기설비공사 중에 또는 공사완료 후에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있다.

금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공포로 새로이 공사계획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추가로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용 전기수용설비는 수전설비 용량이 1000kW이상의 구내 배전설비이며, 이에 대하여 안전공사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esco.or.kr>)를 통한 정보제공과 각 사업소(☎ 1588-7500)를 통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 한전, 신배전정보시스템(NDIS)개발

한국전력은 배전 설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배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신배전정보시스템(NDIS)을 개발, 9월부터 인천지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신배전정보시스템이란 지리정보시스템(GIS) 및 업무흐름관리(WFM)등 신개념 및 신기술을 도입해 설비도면 전산화, 배전설비 종합 DB구축, 통계 및 분석, 투자계획, 기술계산, 통합설계, 공사관리,

설비운영 등 배전관련 업무 전반을 온라인 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한전이 개발한 NDIS는 국가수치지도에 가공 및 지중배전설비도를 디지털화해 초기 배전마스터 DB 구축을 지원하는 설비DB구축시스템, 최적의 설비 투자계획 및 보수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배전계획시스템, 온라인상에서 최적의 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배전설계시스템, 각종 공사의 시공에서 준공에 이르는 모든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공사관리시스템, 배전설비 운영업무를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설비운영시스템 등 5개의 시스템으로 구축돼 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NDIS의 도입으로 배전관련

업무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고장정전시간이 단축돼 연간 약 433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직원들이 업무를 쉽고 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내부고객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 신속한 업무처리와 고품질의 전력 공급을 통해 고객 민원사항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현재 이 시스템을 인천지사와 관할 지점에서 기존 IMS시스템과 병행해 시범운영중에 있으며, 시범운영 중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 갈 계획이다.

## 한전, 인도 송전망 공사 참여키로

한국전력이 인도 송전망 공사에 참여키로 했다.

한전은 인도의 기존 송전선로를 교체하는 사업에 참여키로 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전이 참여의사를 밝힌 사업은 인도의 기존 400kV 가공송전선로 1천961km를 통신케이블 등 다용도로 활용 할 수 있는 ‘광섬유 복합가공지선’으로 교체,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인도 송전망공사 실사단은 지난 7월 30일 한전의 ‘광섬유 복합가공지선’ 설치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7일간의 일정으로 한전을 방문했다.

인도 송전망공사 일행은 이날 한전 부사장과 대

외사업단장을 만나 ‘광섬유 복합가공지선’ 설치사업과 정보통신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한전 부사장은 한전의 해외사업현황과 한전이 보유한 송전망 설비에 대해 설명하고 인도의 ‘광섬유 복합가공지선’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표명했다.

인도 송전망 공사 실사단도 한전의 정보통신사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에 관심을 갖고 인도에 적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혀 한전의 사업참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한편 한전은 이번 사업참여를 계기로 ‘광섬유 복합가공지선’ 설치 등 송변전 분야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을 확대해 해외사업의 다각화를 꾀할 계획이다.

## KOTRA, 대규모 릴레이 수출 상담회 개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오는 10~11월 바이어 1천 개 기업을 유치해 전국 주요도시에 서 대규모의 릴레이 수출 상담회를 개최한다.

KOTRA는 오영교 사장 주재로 열린 수출부진대책회의에서 10월과 11월을 '종합적인 수출상담기간'으로 설정하고,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수원, 인천, 대전 등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인 상담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상담회는 초청 바이어 규모(1천 개사)로는 국내 최대 행사다.

KOTRA는 오는 ▲10월11일 500명의 바이어를 초청, 서울 국제무역전시장에서 종합수출 구매상담회를 시작으로 ▲17일 전기기기 전문 바이어 100명을 초청해 전기기기 상담회를 ▲22일에는 바이어 200명을 초청 신발, 섬유, 피혁제품, 포장재 수출 상담회 ▲11월 6일 바이어 150명 초청, 기계류 수출 상담회 ▲11월 16일 50명 바이어 초청 농기계류 수출 상담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KOTRA는 기존의 바이어 유치활동이 국내 기업들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단순행사에 불과했으

나 이번 상담회는 국내 전시회와 바이어를 연계, '타겟 마케팅'을 펼쳐 계약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국내 유망 중소기업 및 수출업체 5천 개 사를 대상으로 나라별, 품목별 초청 희망 바이어 수요를 사전에 조사해 바이어 유치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또한 전자 카탈로그를 이용한 사전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실크로드21([www.silkroad21.org](http://www.silkroad21.org))을 활용해 실패율을 최대한 낮추는 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KOTRA 한 관계자는 "기존 상담회의 경우 바이어가 원하는 국내기업을 연결시켜주는 바이어 위주의 행사였으나 이번 행사는 이와 반대로 국내기업들이 찾는 바이어를 수배, 매치메이킹(Match Making)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KOTRA는 수출상담회와 더불어 한국 전자전(10월 11~15일),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10월 16~19일)등 10월과 11월에 열리는 유명 국제전문 전시회와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 BTI, 대영전기기술 인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인 비티아이(BTI)는 주파수 변환기(VFS), 무정전 전원장치(UPS), 자

동전압 조정장치(AVR)의 제조업체인 대영전기기술(대표 박영길)을 계열사에 편입시켰다고 밝혔다.

비티아이 관계자는 대영인수와 관련 “대영전기는 우리나라 최초로 ‘고출력안정기’를 개발한 벤처기업”이라고 말하고 “고출력안정기의 9월 특허 등록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판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또한 “신기술 마크(NT)를 신청 중에 있으며 10월 초 고출력안정기의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티아이는 대영전기기술에 4억원을 출자, 지분 100%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비티아이의 계열사는 4개로 늘었다.

비티아이는 에너지사업분야의 주파수 변환기, 전압식 안정기의 기술력 확보를 통한 매출증대를 기대하고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대영전기기술의 자본금은 1억 2,000만원이며 총자산은 12억 3,639만원이다.

## 상반기 송배전 실업자 재취직 훈련생 배출

한국전력 중앙교육원은 상반기 송배전분야의 실업자 재취직 훈련생 35명을 배출했다.

이날 수료식에서 임창건 중앙교육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능을 송배전 산업현장에서 유감없이 발휘해 전력산업의 역군이 돼달라”고 당부하고 “교육원은 앞으로도 전기계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배출된 훈련생들은 3개월에서 5개월 간의 합숙훈련과정을 마치고 국가기술자격시험인 ‘외선

공사 기능사보’ 검정시험에 응시, 전원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훈련과정을 모두 마친 수료생들은 배전사업소와 협력업체에 취업해 그동안 연마한 기능을 공사현장에서 발휘함으로써 전력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앙교육원은 이번 훈련과정 수료생을 포함해 지난 98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모두 송배전분야 훈련생 240명을 배출했다.

## 한전, 상반기 중소기업 114억원 지원

한국전력이 상반기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113억9천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중소기업지원팀은 유신기업사의 ‘특고압·초고압검전기 개발’ 등 모두 57개 연구개발과제에 총 19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프로젝트 외주를 통해 92억8천800만원을 집행하는 등 금년 중소기업지

원 예산액의 51.21%인 113억9천5백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전이 상반기 중 지원한 세부적인 사업과 규모는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 지원이 19억6천300만원, 품질인증획득 및 시험설비지원 4천100만원, 해외시장개척지원 1억300만원, 프로젝트 외주 92억8

천8백만원 등이다.

한전은 또, 올 상반기 중소기업 연구개발과제 모집에 총 35건이 접수됐고 이중 채택된 과제는 (주)우강의 '경제형 모선 구분 전용반 연구개발' 등 6건이며 채택되지 않은 과제가 18건, 아직 심사중인 과제는 11건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 채택된 6개 과제에 대해 하반기부터 기술지원 및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정보화기술개발에 6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전은 매년 중소기업 연구개발과제를 선정, 개발비용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 전력시설 관련 용역 하반기 발주

한국전력 송배전처는 최근 총 5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 하반기 중 765kV 울진~신태백 송전선로 설계기술과 154kV 태안~안면간 송전선로공사의 감리용역 등 총 10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한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중 실시될 총 10건의 용역사업은 전력계통시설의 건설과 유지보수, 계통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총 5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 달부터 오는 12월 사이 모두 발주한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착공예정인 1,700억원 규모의 송전선로 건설공사에 앞서 철탑입지지역의 지질 조사와 시공설계기술을 개발을 주목적으로 1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765kV 울진~신태백 설계기술용역의 경우 오는 10월께 전력계통건설처를 통해 발주

될 예정이다.

또한 전력 공급선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초전도전력케이블 시스템 개발용역 사업의 경우 내달 안으로 발주돼 향후 3년 간 전력연구원이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올 상반기 중 계약이 체결된 154KV 태안~안면간 송전선로공사의 감리용역, 초고압가공 직류송전에 관한 연구, 전력계통안정화를 고려한 계통보호대책, 수도권 순동무효전력 확보방안, 전력계통사고현상별 취약개소 도출 및 해소방안, 전력계통 안전성 향상을 위한 발전기 제어계 최적 조정용역, 시험연소로 유지보수용역 등의 사업이 연내 발주될 전망이다.

## 상반기 공구수출 호조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절삭공구를 중심으로 공구 수출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수입은 줄어 무역역조 현상이 개선되고 있다.

공구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구 수출은 2억 1,598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4.6%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고속도강 및 초경합금공구 5,847만 달러로 각각 55.29%, 42.2% 증가해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역적으로는 일본, 이탈리아, 미국, 중국지역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공구류에 대한 수입은 2억 2,005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5% 감소했다.

공구조합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국내 공구의 품질 향상으로 공구제품의 무역역조 현상이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산 공구류의 품질 향상 및 공구산업 B2B 전자상거래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증대 및 무역역조가 반전될 것으로 조합은 전망했다.

## 한국표준협회, JIS 인증업무 본격화

한국표준협회(회장 정몽구)는 일본정부(경제산업성)로부터 해외최초로 JIS마크 승인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고 현판식과 함께, 영흥철강주식회사(사장 김건호)에 제1호 JIS마크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번 JIS마크 인증기관의 지정은 JIS인증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일본 정부로부터 검증 받은 것이며 협회 단독으로 공식적인 JIS마크 인증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일본 국가 규격을 획득·수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기존의 1년 정도 소요되던 심사기간을 2~3개월로 단축하고 인증 비용도 기존의 1/3정도인 410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인증획득이 가능해 졌다. 또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로 JIS(일본공업규격)마크 전분야(16개분야)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또한, JIS마크를 획득하려는 국내기업들 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등 동남아 10개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을 비롯 이들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도 JIS마크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JIS마크 인증 획득 과정 = 한국 표준협회는 일본의 JIS마크를 획득하려는 국내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JIS마크 인증을 취득토록 지원하기 위해 2000년 11월 일본 경제산업성에 JIS마크 승인인증기관을 신청했다. 이에 최우선적으로 JIS마크를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34명의 심사원을 양성해 JIS마크 심사원 자격을 부여해 일본 정부로부터 확인을 받았다.

일본정부는 지난 1월 한국표준협회 조직의 공정성 및 업무 수행 능력 등에 대한 현지 평가와 함께 2월5일 JIS마크 승인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협회는 지난 5월까지 JIS마크 인증심사 수행을 위한 업무 절차수립과 인증에 관련된 모든 심사절차를 완료, 7월에 최종적으로 일본 판정위원회를 통과해 정식 JIS마크 인증 업무 실행 승인을 받았다.

협회의 JIS마크 인증분야는 JIS마크 지정품목 전 분야로 토목 및 건축, 일반기계, 전자기기 및 전기기계, 자동차, 철도, 선박, 철강, 비철금속, 화학, 섬유, 광산, 펄프 및 종이, 요업, 일용품, 의료안전용품, 기타(포장, 용접, 방사선 등)의 16개 분야다.